

해외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중국

SINOMA, 타이완시멘트사와 전략적 제휴

중국중재그룹(SINOMA)이 최근 타이완시멘트(Taiwan Cement Corporation)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에 따라 양측은 관련 정보 교류, 생산능력 제고, 기술노하우 교류 등에 협력하게 되며 폐기물 처리, 채굴 및 탐사, 이산화탄소 포집 등 녹색 시멘트 기술개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전략적 제휴에 따라 양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유하고, 제조 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 공동개척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Vicat Sagar, 생산라인 가동 개시

프랑스 Vicat그룹과 Sagar Cements가 합작투자해 설립된 Vicat Sagar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카르나카(Karnataka)주 북쪽에 위치한 Vicat Sagar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연간 2.8Mta로 최첨단 시멘트 제조기술이 접목되었다. 전용 자가발전소가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완제품의 철도 수송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인도 서부와 남부 전역의 유통망을 통해 'Bharathi' 라는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사 관계자는 인도 시멘트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Vicat Sagar의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JP모건, 인도 시멘트산업 단기전망 '불투명'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인도 시멘트기업들에 대한 단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인도의 인프라구조 관련 지출증대 효과로 시멘트업계의 경기가 V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존의 시장 전망과 달리 JP모건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계속 앞지를 것으로 보여 향후 2년간 시멘트 업계의 수요는 8%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암부자시멘트, 벵골지역에 제3공장 건립

스위스 시멘트업체 홀심(Holcim)의 인도 자회사인 암부자시멘트(Ambuja Cement)가 벵골지역에 세 번째 공장 건립계획을 밝혔다. 암부자시멘트는 이미 Sankrail과 Farakka 등 두 곳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데, Sankrail의 2.4Mta 규모 분쇄시설 확충 공사와는 별도로 벵골에서 신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부자시멘트의 Ajay Kapur 대표는 라자스탄(Rajasthan)에서의 3Mta 규모 신공장 건립은 현재 환경 허가를 비롯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럭키시멘트, 인도 신공장 건립 계획 부인

파키스탄의 럭키시멘트(Lucky Cement)가 인도에 시멘트 공장을 짓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11월 럭키시멘트가 인도 펀자브 지역에 시멘트 공장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인도 정부와 접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럭키시멘트는 콩고민주공화국과의 합작투자건과 이라크 투자 등 두 건의 신규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애들레이드 브라이튼, 말레이시아 시멘트시장 진출

호주의 애들레이드 브라이튼(Adelaide Brighton Ltd)사가 말레이시아의 백색 시멘트업체인 APM(Aalborg Portland Malaysia)사의 지분 30%를 2,970만달러에 인수했다.

쿠알라룸푸르 북쪽 이포(Ipoh)지역에 위치한 APM은 18만톤 규모의 소성로와 20만톤 규모의 분쇄기 및 포장설비를 갖춘 백색 클링커 및 시멘트 제조업체이다.

한편 APM은 186만달러를 투자하여 2015년 이후 백색 클링커 생산량을 15만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PT Semen Gresik, 회사명 변경

인도네시아 최대 시멘트업체인 PT Semen Gresik Tbk가 회사명을 PT Semen Indonesia로 변경했다. 이번 사명변경은 PT Semen Indonesia가 국영 시멘트 기업 PT Semen Padang과 PT Semen Tonasa의 지주회사로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인니 정부, PT Semen Kupang 인수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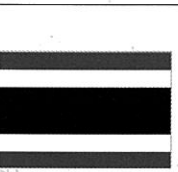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정부는 PT Semen Indonesia에게 시멘트업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PT Semen Kupang의 지분 인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emen Kupang의 지분은 국가가 61.5%, Bank Mandiri가 35.4%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Semen Indonesia에게 PT Semen Kupang의 정부 지분뿐 아니라 PT Bank Mandiri Tbk의 지분까지 인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Sinoma, 인도네시아 반텐 공장 재건 추진

중국 Sinoma International Engineering과 인도네시아 시멘트 제조사 PT Cemindo Gemilang이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에 있는 PT Cemindo Gemilang 시멘트 공장의 신규 클링커 라인의 가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Sinoma International은 3억3,510만달러 규모의 시멘트 제조설비 및 관련 서비스를 PT Cemindo Gemilang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중 핵심은 1만tpd급 클링커 생산라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Siam City Cement, 생산량 확대

태국의 Siam City Cement(SCCC)가 내수확대에 힘입어 내년부터 두 개의 클링커 생산 라인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CC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소성 라인(kiln line) 여섯 기 중 두 기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태국 내 시멘트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는 10월 소성로 1기의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나머지 소성로는 2014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국 시멘트업계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건설투자 증가로 지난해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13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SCCC는 2013년 초에 캄보디아 공장 신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SCCC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를 통해 캄보디아에 본격적으로 시멘트 공장 건립에 나서게 된다.



베트남

Gresik, 베트남 시멘트업체 인수

인도네시아 최대 시멘트기업인 PT Semen Gresik Tbk가 베트남 시멘트기업인 탕롱 시멘트(Thang Long Cement)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PT Semen Gresik Tbk는 베트남 탕롱시멘트 합작회사의 지분 70%를 1억5,7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탕롱시멘트는 연간 230만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7,600만톤의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50년간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2012년 베트남 시멘트 실적 전년대비 3.5% 감소

2012년 베트남의 시멘트 매출 실적이 전년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시멘트협회(VNCA)에 따르면 자국 내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라 2012년 시멘트 내수는 전년대비 7.71% 감소했으나 수출은 30% 증가했다.

한편 베트남시멘트협회(VNCA)는 2013년 베트남의 시멘트 매출이 전년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라크

Kerbala 설비확충에 IFC 자금 융자

국제금융공사(IFC)가 이라크 시멘트산업 재건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금융공사는 Kerbala Cement Manufacturing Ltd(KCML)에 7,000만달러의 자금을 융자해 Kerbala시 인근의 시멘트 공장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구사업은 라파즈그룹의 자회사인 KCML이 이라크 정부와의 양허 계약을 통해 추진된다.

국제금융공사의 자금지원 결정에 따라 장기간 분쟁 이후 인프라구조 확충이 절실한 이라크의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및 재건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CML은 라파즈그룹과 런던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그룹 Merchant Bridge의 합작기업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시멘트,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

사우디시멘트(Saudi Cement Co.)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내수실적 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시멘트의 2012년 4분기 순이익은 2억 7,770만SAR(7,4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4%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3억90만SAR로 전년동기대비 36.8% 증가했다.





앙골라

Secil그룹, 앙골라에 제2 시멘트 공장 건립

포르투갈의 Secil그룹이 앙골라에서 두 번째 시멘트 공장을 건립해 생산량을 280,000tpa에서 1.8Mta로 늘릴 계획이라 발표했다.

Secil그룹 관계자는 “현재 앙골라의 시멘트 수요가 약 4~5Mta에 달해 몇 년 전부터 공장 증설 계획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Secil그룹은 향후 두 단계에 걸쳐 1억 5,000만달러 규모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집트

에너지 부족으로 시멘트공장 가동 중단

천연가스 부족으로 이집트 Misr Beni Suf Cement사의 시멘트 공장 4곳이 2개월 만에 다시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손실액이 100이집트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장 근로자 7,000여명이 실직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집트 정부에 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천연가스를 추가로 수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밝혔다. 이에 덧붙여 “공장을 가동하는데 1일 50만m³의 천연가스가 필요하지만 부족분 대부분을 현지 시장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알제리

지난해 1~11월 시멘트 수입 큰 폭 증가

지난해 1~11월 중 알제리의 시멘트 수입은 총 2억2,5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의 원인은 3~8월 전기 동안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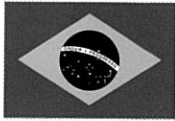
Gloria그룹, 페루 남동부에 시멘트공장 건립

Gloria그룹이 페루 남부지역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페루 남동부 쿠스코 지역에 새로 시멘트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신공장 건립에는 2억5,000만~3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공장 부지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0월 시멘트 생산·출하 증가

2012년 1월~10월 페루의 시멘트 출하는 총 7,865Mt로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생산이 6,909Mt에서 8.05Mt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가운데 수출 실적도 전년동기대비 2배나 증가했다. 페루에서 시멘트 출하가 증가한 원인



브라질

라파즈, 리우데자네이루에 시멘트 공장 건립

라파즈가 2014년과 2016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 효과에 따른 시멘트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리우데자네이루에 두 번째 시멘트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Santa Cruz 광역시에 들어설 신공장은 750,000tpa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600만달러를 투자하여 건설될 예정인 이 공장은 리우데자네이루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라파즈그룹, 2018년까지 브라질에 5억달러 투자

라파즈그룹의 브루노 라퐁(Bruno Lafont) 회장이 2018년까지 5년간 브라질에 10억브라질레알(약 5억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신규투자 계획에는 건설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현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연구소 건립이 포함되었는데, 라퐁 회장은 이 연구소가 올해 하반기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홀심(Holcim), 콜롬비아에 신공장 건립

홀심(Holcim)이 콜롬비아에 2Mta 규모의 신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이 밝혔다.

산토스 대통령은 신공장과 건립과 관련하여 “홀심이 6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알려졌다”며 “현재 가능한 공장 부지로 볼리바르와 안티오키아주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지난해 1~10월 시멘트 수요 8.2% 감소

도미니카시멘트협회(Adocem)에 따르면 2012년 1~10월 시멘트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미니카 중앙은행은 2012년 상반기 건설산업의 부진을 비롯하여 여러 악재가 겹쳐 시멘트업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